

광주형 복지 모델로 사각지대 해소 최선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빛고을노인타운 주말·휴일 개방
 도심 속 가족공원으로 활용
 노인·장애인 시설 직원 어우러져
 시민에 맞는 복지비밀밥 선물



취임 한 달을 맞은 광주복지재단 장현 초대 대표이사의 하루 일과 중 하나는 직원들과의 개별면담이다. 지난달 6일 공식 취임한 장 대표이사는 취임 직후부터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원로들을 만나고 사회복지기관들을 방문해 소통하는 등 하루를 바쁘게 보내면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놓치지 않아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쪼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주복지재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신규 채용한 인력과 기존 빛고을노인재단 직원, 올해부터 위탁하게 된 광주장애인복지관 식구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한데 모여서 불거진 재단의 정체성 문제와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지난 2일 광주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장 대표이사는 “재단이 출범하고 광주 시 출자출연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기 때문에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만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소통을 통해 직원들이 비밀밥처럼 한데 어우러져야만 시민들에게 맞는 복지 비밀밥을 선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이사는 ‘광주형 복지 모델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재단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오는 6월 결과 도출을 목표로 복지 정책 연구에 들어갔다.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의 철학을 광주형 복지 모델에 담아 타시도에 비해 복지 수요가 높은 광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겠다는 의도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광주지역 복지관의 민간위탁 매뉴얼 마련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도 ‘광주형 복지 모델’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최근 ‘남구 10남매 문제’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장 대표이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며 “민간 기금을 만들어 그 자격요건을 없애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만6000여명에 이르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장 대표이사가 임기 중 추진하고 싶은 일 중 하나다. 타운의 중심

이 되는 노인들이 다양한 세대와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는 “평일 오후 5시 이후에 문을 닫고, 주말과 휴일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타운을 가족들에게 개방해 도심 속 공원으로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타운에서 배운 재능을 기부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추진해보고 싶다”며 “장기적으로는 타운이 노인을 중심으로 전 세대가 통합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생각하는 복지는 ‘사람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제도와 정책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출발로 지난 달부터는 장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시간 등에 맞춰 ‘인사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 서먹했던 이용객들도 이제는 미소로 화답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단은 광주 복지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민과 관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장벽을 허물어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한국, 청소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

연세대, OECD 22개국 조사
 한국 주관적 행복지수 ‘꼴찌’

OECD 국가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순위	국가	행복지수(점)
1	스페인	118
2	오스트리아	113
3	스위스	113
4	덴마크	109
5	네덜란드	109
6	아일랜드	108
7	스웨덴	107
8	노르웨이	106
9	이탈리아	105
10	그리스	105
11	독일	104
14	영국	96
15	프랑스	94
22	한국	82

※ OECD 평균=100점
 (자료: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았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의 정도를 OECD 평균(100점)과 비교해 점수화한 것이다.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18점이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113점으로 그다음이었다. 이어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109점이었으며 아일랜드(108점), 스웨덴(107점), 이탈리아·그리스(이상 105점) 순이었다.

한국과 함께 80점대에 속한 국가는 헝가리·벨기에(이상 89점), 캐나다(88점), 체코(85점)이었다.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09년 첫 조사 이후 2014년까지 60~70점대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최하위였다가 작년에는 90.4점(23개국 중 19위)으로 크게 올랐다. 하지만, 올해 다시 최하위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3~4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초등학생 2359명, 중학생 2538명, 고등학생 3011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 행복감 등

을 묻은 뒤 행복지수를 조사했으며 이를 OECD 회원국의 어린이·청소년과 비교했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신체적인 건강 행동을 하는지, 휴면·음주·마약·성관계 등 위험 행위에서 안전한 정도를 평가한 ‘행동과 생활양식’ 조사에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물질적 행복(9위), 보건과 안전(3위), 교육(9위), 가족과 친구 관계(8위) 등 다른 항목에서도 비교적 점수가 높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희망장난감도서관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5월 19일 ‘동글동글 구슬’	물감으로 그림 그리며 신체 배우기
6월 16일 ‘하하 호호 잉잉’	찰흙으로 내 얼굴 빚기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즐거운 미술여행-작은 창작소’ 5~6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주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자리한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오는 19일, 6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미술 퍼포먼스 전문가인 박재우씨를 초청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즐거운 미술여행-작은 창작소’는 아이들이 막연한 주제를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19일에는 ‘동글동글 구슬’을 주제로 물감 신체놀이로 다양한 형태의 동그라미를 그림으로 배우고, 그려본다. 6월 16일엔 ‘하하 호호 잉잉’을 주제로 찰흙으로 자신의 다양한 얼굴 표정을 빚는 시간을 갖는다.

대상은 5~6세 아동이다. 수강료는 장난감도서관 회원은 1만원, 비회원은 2만원이다. 문의 062-264-006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케이크로 전하는 감사의 마음 광주서노인종합복지관과 ‘신한카드 고객봉사단 아름’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최근 서구 지역 독거노인을 초청해 케이크를 만들고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제공>

인권위, 아동인권문제 전담 소위원회 설치

유엔 ‘아동권리위’ 신설 권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안전 심의

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권위원 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만18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 ▲아동 보호시설과 소년보호시설 방문조사 ▲진정사건 관련 아동인권 증진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인권분야의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세로 인권위는 최근 3년간 모두 1459건을 진정을 접수해 13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학교 내 체벌 금지,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교복 고정명찰 부착 관행 개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강압적 심문 개선, 휴대폰 사용 제한 완화, 세월호 추모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권고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김영혜 인권위 상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4층 상가 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 좋음)

■ 감정가 (분할 시) → 56억
 ■ 용자 → 26억(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 매가 38억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을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매가 1억 1천만

■ 서구 쌍촌동 대원파크빌 (빌라 원룸)
 - 2층 (11평) 은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식당,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아파트
 - (5평) 2층-전경 좋음, 주변골프장,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 전남 장성 삼서
 - (토 3492평, 건 5733평) (의료시설)
 - 1층~3층 (의료시설 전) 요양병원 운영
 - 정성 상무대 입주, 대로변
 ■ 감정가 48억 8천 6백 - 최자가 34억 2천만

■ 동구 동명동
 - (토211평, 건608평) (근린시설)
 - 1층 (소매점) 2층~6층 (오피스텔 룸)
 - 동명 교회 복측 인근, 4차선 도로접
 ■ 감정가 19억 5천 - 최자가 13억 7천

■ 서구 양동
 - (토577평, 건424평) (숙박시설)
 - 1층 (주차장,기타)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km 도로 접
 ■ 감정가 10억 8천 - 최자가 4억 8천

■ 전남 순천 조례동
 - (토2332평, 건3960평) (근린시설)
 - 7층건물 (수영장,사우나,골프장,주택,헬스) 복합 건물
 - N백화점 부근, 대원아파트 단지, 순천C중상지 대면
 ■ 감정가 140억 - 최자가 64억 5천

■ 서구 화정동
 - (토 800평, 건 2567평) (동 나이트)
 - 광천타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타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 감정가 130억 - 최자가 49억 7천

■ 북구 운암동
 - (토 66평, 건 194평) (근린시설)
 - 1층~5층(사무실) 지하(음식점), 6차선도로 접
 ■ 감정가 7억 4천 - 최자가 7억 4천

경매교육
 경매 이해는 대충해서!!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회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인오신분
 부동산 관련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말하십시오 환영합니다.

010-6832-9700